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예수의 이름으로 [빌립보서 2:9-11]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9 이렇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마태복음 20:19).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5). 이 말씀에 적힌 일들이 정확히 우리 주님께 벌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그 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역설입니다. 나중된 자가 처음되고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으며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며 섬기는 자가 주님이 됩니다. 죽었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고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와 긍휼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약하고 소망 없던 우리들을 성령님을 통해 강하고 힘세게 하셨습니다. 4세기경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겸손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찾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세상이 가진 모든 존귀한 가치들에 대한 놀라운 안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기쁨으로 가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9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그 분을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같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와 동일하게 되시고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섬김 그리고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와 위로와 교제와 온순한 긍휼을 얻고 우리가 그 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빌립보서 2:5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9절 말씀까지 계속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마음을 품은 모든 자들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삶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사는 동기가 감사함으로 넘칩니다. 그 분께서는 그 분의 힘 안에서 살아하며 그 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상 주셨습니다. 그 분의 이름은 특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힘과 권능과 권세와 명예와 다스림이 집약되어 있는 이름. 모든 창조물들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 모든 것들이 그 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릴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 분이 이 땅에 계실동안 주어진 이름 그리고 그 분이 이 땅에 계실동안 보여주신 성품을 잘 묘사한 이름. 예수님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경배 드리게 될 겸손한 분. 그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알듯이 구원자입니다.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구원이 되는 이름이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는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게 될,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될, 우리 모두가 영광 올리게 될 이름. 모든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 분의 교회를 통해 복음을 퍼지게 하시고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이들의 경배 받으실 분. 그러므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경고합니다. 모든 것들은 그 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분을 왕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그 분께 경배를 드린다면 그 분이 다시 오실 때 구원으로 그 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주에 그 분께 경배를 그리게 된다면 그 분이 다시 오실 때 심판과 정죄받음으로 그 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분이 다시 오실 날을 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전파의 사명의 마지막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의 문을 닫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 생명책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까지 매일매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모두 일어나 지금부터 그 날이 오기까지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우리의 모든 언어들을 사용해 예수님을 전합시다.